

## 7년 준비 끝... 남도 '의로운 역사' 깨어나다



박물관 전경



명중 재위기 사실 기록 책



남도의병역사박물관  
NAMDO RIGHTEOUS ARMY HISTORY MUSEUM

국난의 고비마다 남도는 가장 먼저 들고 일어 섰다. 을묘왜변에서 임진왜란, 구한말 항일 의병에 이르기까지 전남은 '의(義)'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전면에 섰다. 그러나 그 기억은 지역의 구전과 문헌, 산발적인 유물 속에 흩어져 있었다. 지난 5일 개관한 남도의병역사 박물관은 그 흩어진 기억을 한데 모은 공간이다. 7년여 준비 끝에 문을 연 이곳은 전국 최대 규모의 의병 전문 박물관으로, 남도의병 정신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오늘의 가치로 확장하는 거점을 지향한다. 단순한 전시관을 넘어 연구·교육·관광을 아우르는 역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년 1개월의 준비... '의향'의 기억을 한 공간에 전남이 품어온 의병의 역사가 마침내 하나의 상징 공간으로 집약됐다. 지난 5일 나주 일원에 조성된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정식 개관했다. 을묘왜변(1555년)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전라도에서 자발적으로 봉기해 싸운 의병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전문 박물관이다.

남도의병은 특정 시기의 단발적 저항이 아니다. 왜구의 침탈에 맞선 을묘왜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구한말 항일 의병에 이르기까지, 남도는 국난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의(義)'를 선택해왔다. 여기서 '의'는 단순한 정의감이 아니라, 당위와 정당성, 도덕적 책임을 포괄하는 가치다. 남도의병은 지역 공동체가 공유한 윤리적 결단의 집합이었다. 전남 곳곳의 향교와 서원, 마을 공동체는 의병 봉기의 기반이 됐고, 농민과 유생, 상인에 이르기까지 계층을 넘는 참여가 이어졌다. 이는 특정 영웅 서사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움직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같은 역사적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교육·연구·관광 자원으로 확장하기 위한 구상이 본격화된 것은 2019년 1월 연구용역 확정이 출발점이었다.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중앙투자심사, 국제설계공모, 전시물 제작 등을 거치며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준비 기간만 약 2591일, 7년 1개월에 이른다. 단순 건립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시간과 속의가 필요했다.

△전국 최대 규모... 전시·추모·체험 기능 결합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부지면적 2만2396㎡, 연면적 6993㎡ 규모로 조성됐다. 지상 1층, 지하 1층

구조에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 무명의병 추모전시실, 어린이박물관, 수장고, 카페테리아 등을 갖췄다. 전국 의병 관련 박물관 가운데 최대 규모다. 총사업비는 442억원이 투입됐다. 상설전시실은 시대별 의병 활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치하고, 디지털 영상과 실물 유물을 결합해 이해도를 높였다. 전투 장면이나 격문, 교지 등 문헌 자료는 물론, 의병이 사용했던 생활 유물까지 함께 구성해 '사람의 역사'로 읽히도록 했다. 이를 없이 사라진 의병을 기리는 추모전시실은 공간의 중심축을 이룬다.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목념과 사색의 시간을 갖도록 동선을 설계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어린이박물관은 의병사를 미래 세대의 눈높이로 풀어낸다. 체험형 콘텐츠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 인식을 높이고 결합시키는 방식이다. 학교

의병 관련 자료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문서, 개인이 보관하던 무기와 생활 유물, 항일운동 관련 기록 등 유형과 출처도 다양하다.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연구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은 박물관 개관의 핵심 성과다. 특히 기증과 기탁이 적지 않다는 점은, 지역사회가 의병의 기억을 공공의 영역으로 옮기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

향후 과제는 아카이브의 정교화다. 단순 수장 기능을 넘어, 유물의 맥락을 분석하고 학술 성과로 축적해야 한다. 의병 활동의 지리적 분포, 인적 네트워크, 사상적 기반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한다면 남도의병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중요한 축으로 재조명될 수 있다.

△'의'의 현대적 해석... 관광을 넘어 정체성으로 박물관 개관의 의미는 방문객 수치에만 있지 않다. 남도의병 정신을 오늘의 가치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공동체의 책임, 정의로운 선택, 공공성을 위한 희생이라는 의병의 정신은 현대 사회에도 유효하다.

전남은 그동안 '의향'이라는 상징을 여러 맥락에서 언급해왔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 공간과 콘텐츠로 구현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상징을 실체로 전환하는 시도다. 지역 정체성을 외부에 설명하는 창구이자, 내부적으로는 자긍심을 확인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개관 이후 관람객 유치, 프로그램 운영, 연구 성과 축적이 뒤따라지 않으면 상징성은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 반대로, 의병사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 전국 최대 의병 전문 박물관... 나주서 개관·본격 운영

### 442억 투입·3085점 유물 확보... 의병 연구·교육 핵심

### 나주권 역사벨트 연계 서부권 문화관광 거점 도약 기대



이순신 일명장

연계 수업과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될 경우, 박물관은 지역 역사교육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박물관 입구에 조성된 '남도의병 역사숲'은 전시 공간과 외부 경관을 연결한다. 기념 조형물과 안내판을 배치해 산책과 학습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했다. 전시는 실내에 머무르지 않고, 공간 전체로 넓힌 점이 특징이다.

△3085점 유물 확보... 의병사 집적의 출발점 박물관은 유물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유물 구입에만 19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현재 소장 유물은 총 3085점이다. 구입품 1500점, 기증품 383점, 기탁품 1202점으로 구성됐다. 2027년까지 5000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 세 번째 도립박물관... 역사문화 플랫폼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전남의 세 번째 도립박물관이다. 기존 도립박물관이 고고·미술·지역사 중심이었다면, 이번 박물관은 '의병'이라는 특정 역사 주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전남이 스스로를 '의향'으로 규정해온 역사적 서사를 제도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박물관은 교육·체험·관광이 결합된 플랫폼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나주 일대는 문화유산이 밀집해 있다.

인근의 국립나주박물관, 나주읍성 금성관, 영산강 유역의 마한 유산과 연계하면 역사 관광 동선이 자연스럽게 넓힐 수 있다. 개별 유적을 점으로 남겨두지 않고, 의병이라는 서사로 묶어내는 전략이 요구된다.

석하는 장이 된다면 박물관은 지역 정체성의 구성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만호 전남연구원 문화관광연구실장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전남의 세 번째 도립박물관으로, 남도의병 정신을 계승·교육·체험하는 역사문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의병 자료의 체계적 축적과 연구를 통해 전국 의병사 연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중환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준비단장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자발적으로 일어섰던 의병정신의 숭고함을 기릴 수 있는 대표적 장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역사적 문화 공동체 허브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매천 황현 초상



의병들이름이 기록된 벽



외부 부조조형물